



## 잊혀진 여카인 왕국의 왕도 먀웃우를 찾아서

In Search of Mrauk-U,  
the Old Capital of Rakhine Kingdom

박장식\*

Jang Sik PARK

15세기 초에 발흥하여 버마족 공바웅(Konbaung) 왕조의 보도퍼야(Bodawpaya) 왕에 의해 1784년 멸망했던 여카인(Rakhine) 왕국의 고도 먀웃우(Mrauk-U)<sup>1)</sup>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을 각오해야 한다. 버마족의 고도 버강(Bagan)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에 결코 뒤지지 않는 유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외부에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먀웃우는 그 명성에 비해서 열악한 교통수단 탓에 일 년에 고작 4천 명 정도만이 방문하는 곳이다. 여카인주의 최대 관광지이니 교통편은 잘 마련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 동안 문헌이나 사진을 통해서 그 웅장한 모습을 자주 접해온 탓에 유명한 유적지인 만큼 가는 길이야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수단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에 따른 비용도 상상을 초월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jspark@pufs.ac.kr

1) 영국 식민지배기에는 '옛 고도'라는 의미의 묘하웅(Myohaung)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옛 지명인 '먀웃우'로 다시 환원되었다. '먀웃우'의 여카인어 발음은 '므라웃우'에 가까운데, 'y'는 'r'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여카인'도 그들은 '러카인'으로 발음한다.

미얀마 양곤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여카인주의 주도 싯뉘(Sittwe)로 가서 강폭을 어림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깔라당(Kaladan)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전에 마웃우로 가기 위한 선박을 구해두지 않으면, 오전에 싯뉘에 도착해도 마웃우로 직행한다는 보장은 없다. 보통 싯뉘에서 마웃우까지는 어선을 개조한 유람선이 몇 척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행사의 사전 예약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당일 무작정 배편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개조된 유람선의 경우, 편도로 약 7~8시간이 소요되니 싯뉘 도착 즉시 배편을 구하지 못하면 당일 출발은 어렵다.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얀마 정부가 늦은 오후 출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을 절약하려면, 구하기 힘들긴 해도 2시간 정도면 마웃우에 도착할 수 있는 스피드보트가 있다. 최대 3박4일까지 자그마치 300달러를 요구한다. 소형 보트에 야마하 엔진 하나를 장착한 것으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여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눈물이 날 만큼 비싸긴 해도,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을 감안할 때, 스피드보트의 고비용은 나름대로 값어치를 한다. 아무튼 마웃우의 여정은 양곤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사전에 준비한 후 출발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다. 이곳만큼은 타 지역에서 으레 해왔던 도착 이후 알아보기 식의 임기응변적인 일정잡기는 통하지 않는다.



<그림 1>  
여카인주의 주도  
싯뉘의 조용하고  
한가로운 포구의 모습.  
출처: 필자 사진  
(이 글의 모든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것임).

뱅갈만의 풍부한 수산자원의 집산지로, 최근 뱅갈만에서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천연가스전의 발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여카인주의 최대도시이자 마웃우의 첫 관문인 싯뻬는 활기에 차있을 거라는 짐작은 여지없이 빛나간다. 사실 최종 목적지인 마웃우도 중요하지만, 영국의 식민지배 초기에 중심지로 부상했던 싯뻬를 보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기에 내심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었다. 미얀마의 핵심지역이 아닌 소수종족 여카인족의 도시라는 시각을 가지고 간다면 그 정도로 실망하지 않겠지만, 오랜 기간 미얀마를 연구해온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기대 이하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녁식사로 이곳의 명물인 타이거새우 큰 놈을 먹어보겠다던 생각도 접어야했고, 새로운 자원의 발견으로 이 도시는 무척 분주할 거라는 예상도 날아가 버렸다. 여전히 식민지풍의 조용한 포구 마을의 정겨운 풍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우여곡절을 거쳐 급히 개조한 스피드보트를 구해 싯뻬 포구를 떠났다.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스피드보트는 모두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sup>2)</sup>의 대규모 난민사태와 관련된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의 이용은 불가능하였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마웃우를 향하여 출발이다. 깔라당강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고 넓다. 강폭이 커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갈 정도이며, 실제로



<그림 2>  
우유빛깔의 깔라당강의 모습, 강폭이 하도 넓어 바다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2) 여카인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의 무슬림으로 1990년대부터 미얀마 군사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불법이민자로 규정하여 탄압하기 시작하자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 국경지역에 대거 난민촌을 형성하였다.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유엔이 개입하여 중재에 나서고 있다.

강물도 짠맛이 많이 난다. 그래서 상류로 올라갈 때에는 시간도 단축되며, 오히려 하류로 내려올 때에는 해수의 역류 작용으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이다. 깔라당강의 중류쯤에는 우유빛 강물을 만난다. 게다가 파문도 거의 없고 잔잔한 물안개가 피어올라 마치 천국에 와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이다. 참으로 오랜 만에 느껴보는 정막감이 영혼 깊숙이 침잠되었다.

이윽고 마웃우에 가까워지면 좁은 지류로 들어가 강가의 크고 작은 마을들을 만나고, 조각배를 타고 이동하는 여카인족 사람들과 조우한다. 스피드보트가 뿜어내는 큰 파문이 그들의 조각배를 위협하지만, 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늦춰주어 안전 운항을 돕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여유로운 마음과 아늑한 주변 광경이 어우러져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전혀 길게 느끼지 않는다. 넓은 들판에 추수가 끝나 쌓아올린 벼단과 한가롭게 노니는 물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시뻘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급한 맘들이 어느새 다 지워져 버린다. 정주해서 살 순 없겠지만, 때로는 이런 곳에 찾아와 장기간 머물러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솟구친다.

이미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가이드가 손짓을 하고 있는 마웃우의 선착장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작은 규모이다. 도저히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지프차에 올라타 일단 숙소로 가면서 마웃우의 실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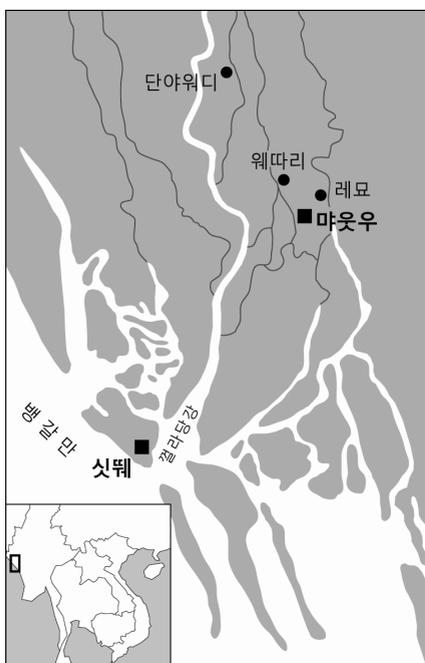
<그림 3>

수확이 끝난 들판의 벼짚 모음, 저녁노을이 들 무렵 멀리서 보면 마치 황금 덩어리로 착각하기 쉽다. 황금의 땅을 일컫는 '수완나부미'는 이것에서 유래된 것은 아닐까?

조금씩 발견한다. 미얀마 여행길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타자와의 조우에서 발생하는 경외감이 전율처럼 흐르게 된다. 창밖으로 힐끗 보이는 여카인 왕국의 흔적들이 벌써 카메라를 쥐 손을 움직여 뷰파인더로 시선을 옮겨놓게 한다.

언어 분류상 여카인어가 미얀마어와 유사하다고 해서 여카인족을 버마족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큰 오산이다. 언어나 문화 요소의 유사성으로 종족정체성을 결부시키는 것은 미얀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 미얀마어와 유사하다고 여기는 여카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이곳은 미얀마 중심부의 버마족과는 다른 정체성을 지닌 여카인족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질적인 요소들이 눈에 많이 띈다. 결론적으로 여카인족은 버마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결코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웃우는 여카인 왕국의 유일한 왕도가 아니다. 4세기 중엽부터 발흥한 여카인 왕국은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4개의 왕도가 존재했다. 마웃우는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왕도였고, 이전에 3개의 왕도가 이 지역 주변에 아직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마웃우의 북쪽으로 30km



<그림 4> 여카인주 싯뉘와 마웃우 주변 지형도

떨어진 곳에 인도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단야위디(Dhanyawadi, 4세기 중반에서 6세기 초)가 최초의 왕도로 알려져 있고, 6세기에서 8세기까지는 그 아래쪽에 위치한 웨따리(Wethali)가 두 번째 왕도였다가, 그 이후인 11세기에서 15세기 초까지 레묘(Le-Mro)에 왕도가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하려는 마웃우는 네 번째이며 마지막 왕도인 셈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단야위디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왕도는 마웃우 주변에 몰려있는 형세이다. 짧은 체재 기간 동안 나머지 세 곳을 둘러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마웃우의 왕궁터 내에 자리한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는 것으로 일단 만족해야 한다.

<그림 5>  
남쪽 렛세 호수의 출입구. 그 양측으로 독이 세워져 있는데,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 외에도 외부의 적을 막는 방어체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고도(古都) 마웃우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서쪽과 남쪽은 깔라당강의 복잡한 지류와 호수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과 북쪽은 그리 높지 않지만 산이 이어져 있어 쉽게 정복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게다가 동쪽 지역은 벼농사에 유리한 넓은 평지가 있어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이곳은 단순히 소왕국의 터전이라기보다는 버마족의 버강이나 크메르의 앙코르에 견줄 만한 도시문명이 존재했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 같다. 실제로 마웃우의 전성기였던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에는 아시아 및 유럽 각 지역과 활발한 교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에 이곳을 방문했던 홀란드 상인은 마웃우를 런던과 암스테르담과 견줄 만한 아시아의 부자 도시로 부르기도 했다. 마웃우의 포구 건너편 다잉지(Daingri) 호수 주변에는 과거 유럽 상인들의 거주지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 6>  
마웃우의 동쪽 꼬따웅(Koethaung) 사원 주위로 펼쳐진 경작지의 전경. 건기에 농업용수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벼농사에 필요한 토지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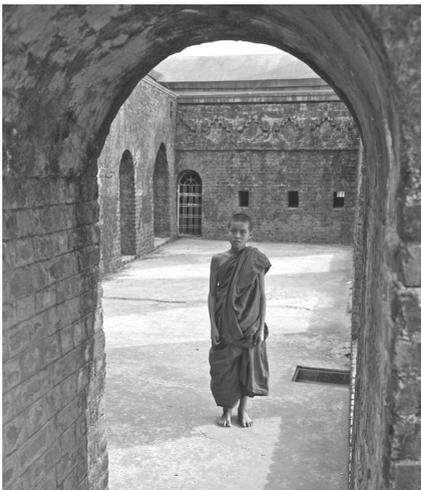


<그림 7> 동근 원통형의 탑으로 둘러싸인 싯따웅 사원. 중앙 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지붕은 버마족의 사원 형식과 유사하지만,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동근 탑 형식은 마웃우의 고유 양식이다.

대체적으로 여카인 왕국의 불교 유적은 미얀마의 핵심영역에서 볼 수 있는 몬족(Mon)과 버마족(Burman)의 상좌불교의 것과 비교해볼 때,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오히려 많은 것 같다. 사원의 외형적 모양과 가람배치 및 내부구조뿐만 아니라, 건축재료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버마족이 건축한 불교사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여기 소개하는 마웃

우의 가장 중심적인 불교사원인 싯따웅(Shite-thaung) 사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상 8만개의 의미를 지닌 싯따웅 사원은 마웃우 시대의 전성기였던 밍빙(Min Bin, 여카인어로는 몽봉) 왕이 인도 뱅갈을 점령한 직후인 1536년에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마족의 불교사원과 무갈제국 이전의 뱅갈 이슬람 양식이 혼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독특한 마웃우의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특히, 싯따웅 사원 서편의 아치형의 벽면과 내부 회랑 천정의 돔(dome) 형식은 이슬람 양식으로 여겨진다.



<그림 8> 아치형 출입구는 뱅갈 동부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슬람 양식으로 마웃우의 독특한 건축구조로 자주 등장한다.



<그림 9> 싯따웅 사원의 내측 회랑. 왼쪽 벽면에 6층 부조가 보인다. 그 부조 표면에는 마우우 특유의 양식인 색상이 덧입혀져 있다.

뽀카웅(Pokhaung) 언덕의 서쪽 경사면을 이용하여 건축된 싯따웅 사원은 우선 벽돌이 아닌 화강암을 주 건축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버마족 사원이 벽돌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 벽돌을 사용하면 치장 부조나 조각을 새길 때에 석회를 발라 응고시켜 이용하는 것(stucco)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만, 화강암의 경우 견고하긴 하지만 세밀한 새김이 불가능해 다소 투박한 느낌을 준다. 싯따웅 사원은 중앙 불상보다는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돔 구조의 천정을 지닌 내부 회랑의 한쪽 벽면에 자리 잡고 있는 6층 부조가 눈길을 끈다. 1층에서 5층까지는 붓다의 전생을 다룬 본생담(jataka)의 내용과 당시 마우우 문화적 면면이 새겨져 있다. 맨 위 6층에는 브라만과 신의 모습이 등장한다.

또한, 뽕갈지방의 무슬림을 정복한 밍빙 왕은 이 사원의 건축에 있어서 자신을 불교도왕의 최고권력자인 전륜성왕(轉輪聖王, cakravartin)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감상의 핵심 포인트 중의 하나이다. 그런 모습은 <그림 10>의 내부 회랑의 부조에서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인드라(Indra)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드라의 승용동물인 코끼리로 상징되는 아이라와타(Airavata)에 올라타 있는 형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림 10> 싯따웅 사원의 건축자 명빙왕과 그 왕비.



<그림 11>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있는 수르야의 모습

며, 그 곁에 왕비와 시녀를 동반하고 있다. 인드라는 불교에서 샤크라(Sakra, 帝釋天)로도 여겨지며, 붓다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 전륜성왕을 꿈꾸는 불교도왕에게는 최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사원이긴 하지만, 인도 영향이 강하여 버마족 불교사원에서 보기 어려운 힌두신의 모습도 발견된다. 인드라 외에도 태양을 상징하는 수르야(Surya)도 눈에 들어온다. 전륜성왕에게는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Mt. Meru, 須彌山)을 움직일 수 있는 수르야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내부 회랑의 부조에 있어서는 단조로운 표현을 피하기 위하여 화강암 표면에 색상을 덧입혀 화려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색상이 엿보이는데, 후대에 입혀진 것이 아닌 당시의 색상이 아직 남아있다. 게다가 생물의 눈동자에 검은색을 칠하는 것도 이곳 부조의 특징으로 화강암의 단조로움에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싯따웅 사원의 부조나 조각에 있어서 미얀마 타 지역의 불교사원들과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불상의 두상 모양과 성스러운 사원에서 도저히 표현될 수 어렵다고 여겨지는 에로틱한 장면들이다. 관람자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른바 불경스런 표현들이 이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다. 불상의 두상에 있어서 표준적인 인도풍의 곱슬머리 표현은 적어도 마웃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불상의 얼굴은 여카인족의 남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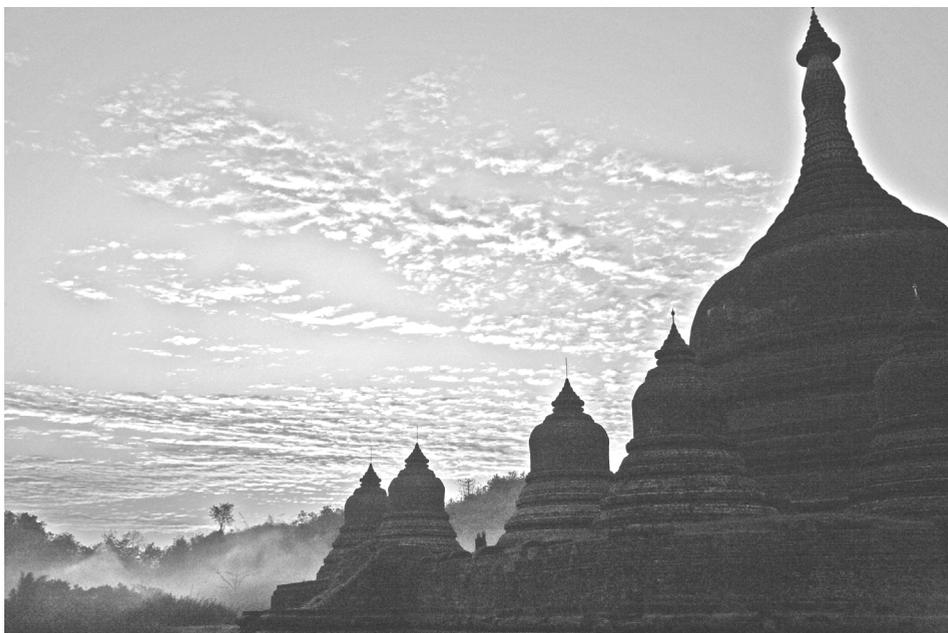


<그림 12> 싯따웅 사원에는 당시의 문화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부조에 새겨져 있어 귀중한 사료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물들의 눈이 검정색이 칠해져 있는 것은 이곳 부조의 특징에 속한다.



<그림 13> 꼬따웅 사원의 불상의 모습. 두발의 모양이나 얼굴의 표현이 타 지역과 확연히 구별된다. 대체로 볼륨감 있는 손과 팔 및 다리의 모양도 마웃우 양식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마웃우 주변에는 여전히 800기가 넘는 사원이나 탑이 존재한다고 한다. 물론, 버강의 사원군에 비해서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사원의 양식이나 치장 기술에 있어서 미얀마의 몬족, 버마족 스타일로 대표되는 주류적 양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차이를 발견하는 작업은 미얀마 관광의 또 다른 즐거움에 속한다. 게다가 유적지의 풍경도 다른 곳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 여정의 고생 길도 어느덧 사라지고 만다.



<그림 14> 이른 아침 동트기 직전 마웃우의 모습은 붉은 색과 물안개의 조화로 형용할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강, 호수를 비롯한 풍부한 수자원, 강유역의 기름진 평원 및 낮은 구릉들로 이루어진 지형적 이점은 이 지역에서 강성한 왕국이 터전을 잡기에 손색이 없었고, 인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유로 인도문명이 쉽게 유입이 될 수 있어, 특히 미얀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슬람 양식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마웃우의 문명세계는 버마족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문화적 특색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외부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소수종족으로 간주되는 여카인족의 토지에 이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

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방문객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교통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이곳은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신비의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